

# 도교육청, 전북교육아카데미 운영

‘심심(深深)한 초대 전북교육아카데미’ 4월부터 시작... 진로탐색·인문과학·기후·환경·문화예술 분야 등 강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월부터 ‘심심(深深)한 초대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시민 공동체식 회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올해 첫 아카데미는 오는 4월 29일 조법중 교수(우석대 역사교육학과)의 강의로 문을 연다.

우석대 박물관장이자 전북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는 ‘화륜산을 타고 온 포크씨의 전라도 여행기록’을 주제로 전북교육공동체와 만난다.

5월에는 오기영 교수(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를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본다.

이어 ▲6월 한창완 교수(뽕향한 콘텐츠 만들기) ▲7월 이국은 교수(헌법,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8월 박은정 교수(우리의 하루는 안전할까요?)가 강사로 나선다.

또 ▲9월 김성호 작가(생명을 보는 마음) ▲10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기후위기로부터의 대전환) ▲11월 한창수 교수(스트레스와 우울증) ▲12월 정재민 교수(인공지능시대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강의가 준비돼 있다.

전북교육아카데미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be.go.kr/parent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여 인원은 제한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탐색, 인문과학, 기후, 지리, 생태, 환경, 문화예술, 경제 등 다양한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전달식 교육이 아닌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 중심의 강의로 꾸며질 것이다”고 말했다.



### 신흥고, 우수 학생에 장학금 전달

김효섭 외 33명 학생에게 총 4500만원 장학금 수여

전주신흥고등학교(교장 임희종)는 지난 24일 3학년 김효섭 외 33명에게 총 4,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회현장학회 정영택 이사장, 이용규 동문(전 신흥총동문회 회장), 전봉권 동문(시니어 선교회장)이 직접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주신흥고 총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 회현장학회(이사장 정영택)는 매년 재학생들에게 8,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한 ‘멘토-멘티 장학금’은 졸업한 선배와 재학 중인 후배가 멘토-멘티를 이뤄 후원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진보 장학금, 5월 민주화 운동 글쓰기 대회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희종 교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후배들이 바르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길 바라는 선배들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제5기 서포터즈 출범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언택트, 온택트 시대를 맞아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위해 “제5기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를 출범시켰다.

5기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는 가장 김병준(무역학과, 2학년) 외 6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학일자리센터와 학생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도맡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언택트 시대를 맞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정승우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서포터즈 출범을 두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학일자리센터와 각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기수와 같이 금번 기수에게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는 SNS와 오프라인 행사 등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및 다양한 진로·취업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학생 주도 마케팅 활동으로, 2017년 1기가 출범한 이래로 해마다 진행돼 현재 2021년 5기가 출범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플라스틱백 사용 말고 장바구니 사용하고’

김 교육감, ‘고고 챌린지’ 동참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24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고고 챌린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약속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고 챌린지’의 ‘고고’는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고), 해야 할 한 가지(실천을 하고)’에서 따온 말로 SNS를

통한 실천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환주 남원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교육감은 ‘플라스틱백 사용 말고 장바구니 사용하고’라는 실천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이를 SNS에 공유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비닐봉투는 주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닐백이 아니라 플라스틱백 또는 폴리백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故송경진 교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는가”

진상조사위, 교원소청심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에... 책임자들 사과·민사소송 등 남아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故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에도 여전히 사과할 양심조차 없는가라며 논평을 냈다.

먼저, 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고인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일부 회복된 것에 위안이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7년 5월 신청했던 고인의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는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교원소청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내며 소청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소청심사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24일 심사가 재개됐다.

25일, 교원소청위원회는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5년이 지난 오늘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일부 회복된 것이다.

위원회는 “우선 고인에 대한 단 한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반인권적 패륜행태에 대해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故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인정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인은 범죄자가 맞으며 이 판결의 향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4월8일 통보 예정)을 송달받은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 15748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또는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故송경진 교사를 대신한 배우자(강하정)에게 소청인의 지위를 승계해 직위해제에 대한 적성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은 오는 4월 8일 접수될 예정이다.

## 주수완 교수, ‘佛꽃 튀는 미술사’ 출간

한국불교 미술사 주요 논쟁 시대순으로 정리



우석대학교는 주수완 교수가 한국불교 미술사의 주요 논쟁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佛꽃 튀는 미술사’(백두문화재연구원)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은 한국불교 미술사 학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에 매진했는지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미술사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의 편년 논쟁’에서는 미술사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소재 중 하나인 편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불교도상학의 난제, 반가상은 미륵보살상인가’에서는 일본 코류지

반가상의 출처와 관련된 신라 및 백제 전래설, 일본 자생설에서부터 ‘반가상=미륵보살’설에 대한 찬반양론을 제시하고 있다.

주 교수는 “진정한 논쟁은 비난이 아니라 상대 연구자에 대한 최대의 찬사”라며 “그 치열한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불교 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갈 방향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술사학자인 주 교수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와 고려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유통통상학부에서 실크로드 교류사와 예술경영, 불교 경제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문화재청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그는 한국의 불상과 불화, 불교 건축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친 불교미술의 전파와 교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